

“에어컨 계약방식 잘못 32억 낭비”

검찰총장 차동민·한상대 유력

광주시의회 조사특위, 광주시교육청 ‘부당 계약·인사’ 개선 촉구

MB 이르면 내일 단행... 법무장관 코드인사 논란

광주시교육청의 인사·계약에 대한 특별조사를 위해 구성된 광주시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이하 조사특위) 조사결과 광주시역 상당수 학교가 시설공사 계약과 관련해 법령 및 지침 위반과 편법적인 분할 수의 계약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특위는 12일 활동결과 보고서 등을 통해 시 교육청이 발주한 공사 계약과 인사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조사특위는 “상당수 학교에서 시설공사 계약 등과 관련해 직접적인 법령 및 지침 위반과 편법적인 분할

수의계약이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했다”라며 “특히 대부분 학교가 전문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종 시설 공사 및 용역계약 때 특정업체에 의존해 처리하고 있으며, 결국 기초금액 선정에 도움을 준 업체가 수의계약을 하는 관행이 고착화돼 있다”고 지적했다.

조사특위는 이어 “교육청·학교, 특정 업체와 유착으로 인해 예산낭비와 비리 개연성이 상존하는 구조적인 모순을 안고 있다”라며 “이 과정에서 교육청은 학교회계의 독립성과 인력난을 이유로 각종 학교에 대한 적절한 행정적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조사특위는 특히 “총 1000억원대에 육박하는 시스템 에어컨 구매과정에서 계약방식 등의 문제로 약 32억원의 예산낭비 사례가 발견됐고, 이 과정에서 허위구매와 법령 위반 사례도 나타났다”고 말했다.

조사특위는 “상당수 학교에서 불법 및 지침위반 등이 있었음에도 그간 교육청의 감사에서 한 번도 지적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교육행정의 지도감독 기능과 자정능력이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으며, 인사문제와 관련해 교원배치 과정에서 적정하지 못한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조사특위는 150여 페이지에 달하

는 보고서에서 ▲통합구매, 통합입찰 방안 마련 ▲시설공사, 용역발주 및 물품 구매 관련 편법 작성 및 배포 ▲시설개선 사업 요구 때 시설관련 부서로 단일화 방안 마련 ▲시스템 에어컨 업체간 담합에 따른 손해배상 조치 강구 ▲사립학교에 대한 계약, 회계 등에 따른 지침 마련 ▲현장조사 때 위증에 대한 조사 후 조치 등을 시 교육청에 요구했다.

한편, 지난 4월27일부터 활동에 들어간 조사특위는 종합 조사결과를 13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발표할 예정이다.

/최원일기자 cki@kwangju.co.kr

김준규 검찰총장의 후임 인선이 빠르면 14일께 단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12일 “내일은 검찰총장 후임 인사가 없다”면서 “다만 김 총장의 사표 수리는 현재 절차가 진행 중인데 내일 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13일 한나라당 신임 지도부의 오찬 회동에서 검찰총장 후임 인선과 법무 장관 교체 문제에 대한 의견을 들어낸 뒤 이르면 다음날 인사를 단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복수의 참모들이 전했다.

12일 현재 검찰총장 후보로는 차동민 서울고검장과 한상대 서울중앙지

검장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후임 검찰총장이 내정될 경우 이귀남 법무장관도 함께 교체될 가능성이 크지만 법무장관 인사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 이야기도 있다.

후임 법무장관으로는 권재진 청와대 정무수석이 유력한 것을 전해지지만 야당뿐 아니라 여당 내에서도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다.

이 대통령의 참모가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엄정한 중립성이 요구되는 법무부 장관에 곧바로 기용되는 데 대한 반발이 이는 것이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1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의 최측근을 법무장관에 앉히려는 것은 이해하기도,

용납하기도 어렵다”며 “이명박 정부 들어 공안권력과 사법권력의 전횡과 탈선은 심각한 상황이었다”고 반대했다.

이날 민주당 법사위원들도 공동 성명서를 내고 “내년 국회의원 총선과 대통령 선거를 대통령이 장악하겠다는 의도”라며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한나라당도 내부에서도 부정적 기류가 흘러나오고 있다. 친박(친 박근혜)계는 물론 중립성상의 의원들조차 “이 대통령이 이해받을 인사를 해서는 안 된다. 여당까지 욕먹을 수 있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재난대응 안전 훈련’

광주 북구 우수기관

광주시 북구는 12일 소방방재청이 주관한 ‘2011 재난대응 안전 한국훈련’ 전국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화 각 학교 등 전국 400개 기관이 참여한 이번 평가에서 북구는 주민 참여 지원 대응 대피·테러 및 화재 훈련, 인적재난 대응훈련 등 보여주기식 재난 대응 훈련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현장 위주의 정책을 펼친 점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또 북구는 주민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훈련 일정에 담긴 안내문 등을 주민 밀집지역에 직접 찾아가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쳐 타 기관과의 차별화 전략을 세운 점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중앙부처는 “현장 중심 훈련을 통해 크고 작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주민들의 소중한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종형기자 glee@



“무상급식 주민투표 법정으로” 참여연대 등 사회단체와 05당으로 구성된 ‘오세훈 심판! 무상급식 실현’ 서(울한강·운(한반대) 시민행동 준비위원회)가 11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 청구 서명 과정에서 불법시위가 발견되고 있다며 행정소송 제기에도 앞서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오세훈 무상급식 주민투표 강행

서명부 3장중 1장 무효... 한나라, 지원 요청 거부

전면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 청구 서명부 3장 중 1장이 가짜로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민투표를 강행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야당과 시민사회단체의 이의신청 가운데 무효 서명부가 추가로 나와 유효 서명자 수가 줄더라도 주민투표 청구요건을 갖추는 데에는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 다음달 말께 주민투표를 강행하기로 했다.

이번 주민투표 청구는 서울시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5%인 41만8005

불가능하고, 서명 철회를 한 것 등에서 무효로 잠정 처리했다고 발표했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야당과 시민사회단체의 이의신청 가운데 무효 서명부가 추가로 나와 유효 서명자 수가 줄더라도 주민투표 청구요건을 갖추는 데에는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 다음달 말께 주민투표를 강행하기로 했다.

이번 주민투표 청구는 서울시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5%인 41만8005

명 이상이면 유효하다.

하지만,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이날 오 시장의 주민투표 지원 요청에 대해 “선관위가 투표권 행사를 할 수 없으니 투표를 둘러싸는 행위가 조심스럽다”고 사실상 거부 입장을 나타냈다.

핵심 당직자는 “주민투표에 대해 중앙당과 완전히 분리될 수는 없으나 이 부분을 둘러싸거나 당이 주도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이 주류를 이뤘다”고 전했다.

이두아 대변인은 “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입장은 서울시당이 판단해서 결정할 일”이라고 당 차원의 개입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정원박람회 예산 시의원 일부가 좌지우지”

김인곤 순천시의회 폭로 후 민주 탈당 파문

순천시의회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시 예산 심사과정에서 비민주적으로 이뤄졌다고 폭로한 뒤 민주당을 탈당해 파문이 일고 있다.

순천시의회 김인곤(44) 의원은 12일 오후 시의회 소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순천 정원박람회 예산 심사 등이 민주당 소속 시의원 몇 명에

의해 좌지우지됐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순천시의회 예결위 비민주적 심사과정 내부 고발’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예결위 몇몇 의원들이 시단체 관련 예산을 삭감하는가 하면 순천정원박람회 조직위의 인건비를 삭감하면서 전문가 인건비가의

원 인건비보다 많다고 역지를 썼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정당정치의 폐단과 다수당의 수적인 우세와 당론이라는 이름으로 시정의 발전을 잡는 모습에 염증을 느꼈으며 정적 죽이기식 화풀이 의정활동으로 지역구 예산도 깎인 마당에 더 이상 민주당에 있을 의미가 없다”면서 이날 민주당을 탈당했다.

/동부취재본부=김은경기자 ekim@

“F1관련 여수시의회 성명 이해 못해”

김옥기 도의원, 정병재 여수부시장 질타

정병재 여수부시장의 정무 역할이 도마에 올랐다.

12일 전남도의회에서 열린 F1(포물러)대회 조직위원회의 업무보고에서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소속 김옥기(민중·나주2) 의원은 “최근 F1대회와 관련해 발표한 여수시의회 성명을 이해할 수 없다”면서 “도에서 파견한 여수 부시장은 뭐하는 사람인지 모르겠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국가사업인 여수엑스포를 위해 올해에만 순수하게 도비를 70억원이나 여수시에 내려줬는데도 정작 여수시의회는 F1 대회에 대해서는 ‘F1 티켓 강매를 중단하라’는 황의 성명까지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수세계박람회와 F1 대회가 같은 국책사업이면서 전남의 미래를 결정짓는 핵심 현안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부시장이 정무적 역할을 해야 하는데도, 제 역할을 못하면서 F1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높아지고 결과적으로 이같은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다.

그는 “전남의 최대 현안인 F1대회를 사실상 비난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성명을 여수시의회에서 나오기까지 도를 대표해서 나가있는 여수부시장은 뭘 하고 있었는지 모르겠다”면서 문책인사 필요성까지 거론하며 정 부시장을 강하게 비난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화정주공 U대회 선수촌 조할원 분양가 낮춰라”

2015년 광주유니버시아드대회 선수촌으로 조성될 광주시 서구 화정주공아파트 조할원 일부가 12일 재건축 아파트의 조할원분양가 인하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화정주공아파트 재건축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12일 광주시청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시민 조할원이 입주할 수 있도록 조할원 분양가를 인하하라”고 촉구했다.

비대위는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평당 조할원 분양가가 690만원에 달하고 11~19평을 소유한 조할원 중 25~40평 아파트에 재입주할 수 없는 조할원은 극소수에 불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현석기자 chadok@kwangju.co.kr

비세는 아파트옥상·슬라브주택·빌라·공장의 희소식

국내최초 특허 제10-0986204호 슬라브방수 강판 시공법 개발!

슬라브지붕누수

1. 비가 한방울도 콘크리트에 들어가지 않는다.
2. 겨울엔 연로가 최소 30%정도 절감된다.
3. 여름에는 에어컨이 없어도 시원하다.
4. 슬라브 형태를 그대로 보존하고 방수는 최소 50년이상 간다.
5. 장독대, 빨래건조대로도 사용할수있다.
6. 고추는 땅에서 말리는것보다 3~4배 더 잘마른다.
7. 화학적인 방수제를 사용하지 않고 친환경적인 강판과 목재로 완벽방수 시공한다.
8. 강판바닥이 더러워지지않는다.
9. 반영구적이다.
10. 슬라브 배수구를 100미리도 다시 뚫어서 물빠짐이 원활하다.

광주 동구 대아 APT 시 공 전

광주 동구 대아 APT 시 공 중

광주 동구 대아 APT 시 공 후

공장직영 / 완벽한시공 / 확실한A/S 보장, 전국 최다 시공팀 직접운영 시공을 원하시는 분

단 한번의 공사로 40~50년 보장하는 특수방수시스템!

한농길라강판지붕개량 061) 335-8842, 010-4024-4005

2011년 태양광 발전 주택보급 실시!!

아직도, 전기를 내고 사용하십니까? 주택용 태양광발전 선착순 한정 접수

태양광이란(Sanyo Module)?

반도체 기술을 이용하여 태양빛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태양광발전(주택용)설치 후 효과

태양광주택 사업 설치 사례

태양광주택 사업이란?

일반주택, 공동주택, 국민임대주택을 대상으로 태양광 발전설비의 범국민적 이용을 확대하여 관련 기업의 안정적 투자환경을 조성하고 태양광 시장 창출과 확대를 유도하며, 기술발전을 통한 중장기 수출전력면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태양광시스템이 적용된 주택의 특징

태양광시스템으로 발전된 전력은 주택전기에 사용되고 남는 전기는 한전으로 역전송 됩니다. 역전송시에 한전 계량기를 거꾸로 돌림으로서 전기를 약 80~90% 절약시켜 줍니다. 비가 오거나 흐린 날씨에도 태양광은 소수전력이 생산되지만 발전량이 사용량보다 적으면 자동으로 한전 전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전기를 사용하는 데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기준상용요금(사용전력량 kWh)	설치 시 초기요금	월 상용 요금
8만 원 (약 45 kWh/일)	약 1,800 원	약 78,200 원
10만 원 (약 40 kWh/일)	약 5,600 원	약 94,400 원
12만 원 (약 500 kWh/일)	약 8,900 원	약 111,100 원
15만 원 (약 540 kWh/일)	약 16,500 원	약 133,500 원
20만 원 (약 610 kWh/일)	약 30,600 원	약 189,400 원
25만 원 (약 680 kWh/일)	약 48,000 원	약 202,000 원
30만 원 (약 740 kWh/일)	약 72,000 원	약 228,000 원

*기준 여건에 따라 전력 생산량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태양광 주택 보급 상담문의 ☎ 062-512-1180 / H.P 011-659-7001